

고흥군, 제5기 여성대학 수강생 현장 체험학습 실시

천연염색 체험, 차박물관 견학 등 소통과 배움의 시간 가져



고흥군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차박물관을 견학하며 차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일 제5기 여성대학 수강생들이 보성 다향아트밸리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체험학습은 4개월간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된 제5기 여성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수강생들에게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과 문화·관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수강생들은 보성 다향아트밸리에서 천연염색 체험과 족욕 체험을 통해 자연의 색과 향을 느끼며 일상의 여유를 즐겼으며, 차박물관을 견학하며 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강생들은 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문화와 차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한편, 고흥군 여성대학은 2022년에 개설돼 지금까지 3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 민선 9기 공약 47개
확정

보성군은 8일 민선 9기 군수 공약 사항을 5대 분야 47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약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추진 부서별 검토와 실천계획 수립, 보고회 등을 거쳐 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확정된 공약은 ▲맞춤형 복지·교육도시 실현 ▲미래형 농어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구축 ▲정주환경 개선과 균형성장 ▲청년·지역경제 성장 기반 마련 ▲체류형 관광도시 완성 등 5대 분야 4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군은 확정된 공약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 이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김윤성 기자

해남, 오시아노 캠핑관광
박람회 성황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2026 전남광주캠핑관광박람회가 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열려 전국의 캠핑동호인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가을 열리는 박람회는 전시와 체험, 야외 캠핑이 어우러지며 캠핑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캠핑박람회에서는 캠핑카·카라반·캠핑용품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캠핑 트렌드를 선보인다. 또한 전국 780여팀, 4,000여명의 캠핑객이 참여한 야외 캠핑이 진행되면서 오시아노 해변을 형형색색 텐트와 캠핑카로 물들이며 가을 캠핑의 낭만을 더하고 있다.

2026 전남광주캠핑관광박람회는 11일까지 오시아노관광단지 일원에서 계속된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군민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필요성 공유

진도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과 고두갑 정책자문위원을 초청해 군민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갖는 의미를 공유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도군은 군민 공감대를 넓히고 소통을 통해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최진사댁 셋째딸 신
랑찾기'

장흥군은 오는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폭소 마당놀이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6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전통과 현대, 세대와 세대를 넘나드는 퓨전 마당놀이로 관객들에게 유쾌한 웃음과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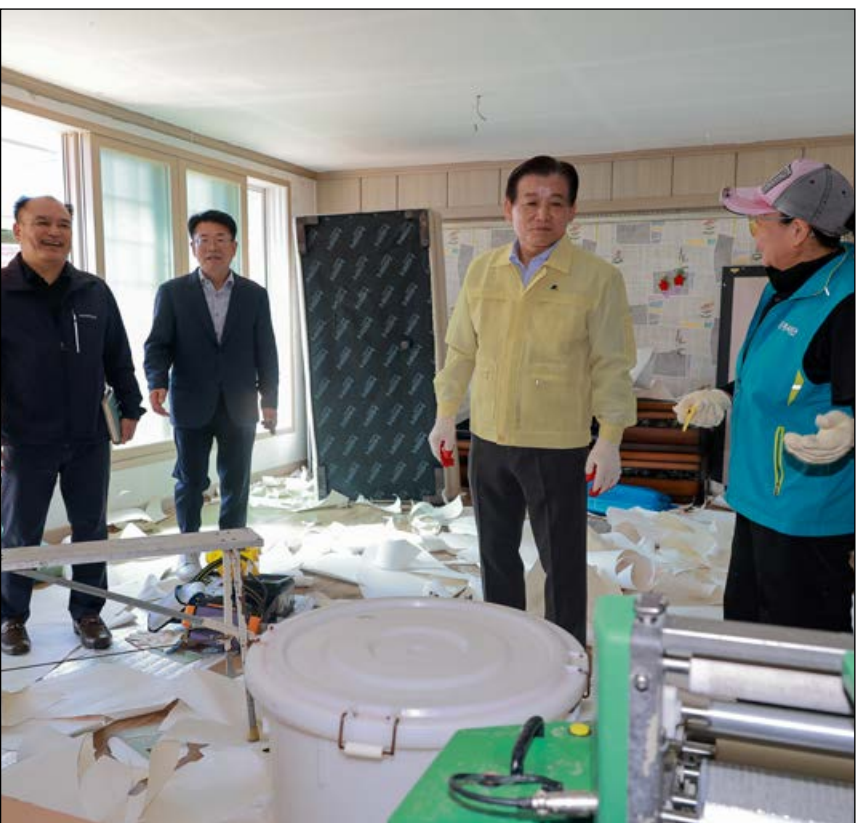
공연은 유난히 예쁘고 참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최진사댁 셋째 딸이 어느 날 상사병에 걸리면서 시작된 다. 사랑에 빠진 상대는 장돌뱅이 남사당패의 한 사내로, 딸의 혼례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진사가 전국을 유랑하는 사내를 찾아 나서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다.

관람료는 1만 원이며 장흥군민은 3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티켓은 티켓링크와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예매 가능하다.

/김정근 기자

김신 완도군수, '외딴섬 주민 곁으로' 소통·현장 행정 펼쳐

신도 등 4개 섬 순회 주민과의 대화·생활 밀착형 봉사 병행



김신 완도군수가 신도 봉사 현장에서 주민 불편 사항을 살피고 있다.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지난 7일 금일읍 신도를 찾아 '2026 외딴섬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외딴섬 주민과의 대화'는 지리적 여건으로 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외딴섬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과 현안에 대해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신 군수는 행사의 형식과 의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건의 사항으로는 도로 확충과 여객선 운항 개선, 부잔교·인양기 등 어업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과 밀접한 5건이 제시됐다. 군은 접수된 건의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처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금일읍 신도를 시작으로 21일에는 청산면 대모도(모서), 11월 4

일에는 노화읍 어룡도, 11월 18일에는 소안면 횡간도 주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신 군수는 "외딴섬 주민들은 교통, 의료, 생활 등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원 공중보건 의와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신도를 찾아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이미용, 돈보기 지원, 도배, 방충망·등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외딴섬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변을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요술랜드, 동물농장 등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테마파크

장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